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2003년도 표어 ◎

생명의 성령이여 삶의 주인이 되소서 (롬14:17)

◎ 행동지침 ◎

1. 역사의 주권자를 보자
2. 임마누엘의 삶을 살자
3. 생명 살리기 운동에 동참하자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 558-1106 팩스:(02) 558-2107 www. seoulchurch.or.kr

성탄절 메시지

에덴에서의 성탄절

Christmas in Eden

(창3:14-15)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예수그리스도의 탄생은 그의 죽으심과 부활과 함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이며 신구약성경의 핵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성탄절의 마지막 얘기가 나온다면 창세기 3장에는 첫 번 성탄절 얘기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를 심판하시는 순간에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창 3:15)고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이미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이 선악과 열매를 먹는 순간부터 인간과 사탄의 영적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사탄과 그리스도는 적대 관계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반역했다가 지상으로 쫓겨난 사탄은 지상에서 아담과 하와를 탄핵시켜 하나님으로부터 멀리하고 자기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사탄의 이러한 첫 번 목적은 달성했는지 모르나 그리스도를 대적하려는 두 번째 목적은 실패했습니다.

그 결과 아담과 하와 그리고 그 자손들은 사탄을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언제나 하나님 편에 서 있어야 합니다.

인간의 영적 전쟁은 또한 사탄의 후손과 여인의 후손 사이에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사탄에게는 후손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다툼은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과 사탄의 영향을 받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건치 못한 이들 사이에서 생기는 전쟁입니다.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사탄을 미워하게 하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성탄이 우리에게 준 선물입니다.

창3:15은 Protoevangelion 또는 Urgospel 원복음이라고 불립니다. 여기에도 구원주는 사탄에게 발뒤꿈치를 상하게 될 것이고, 그리스도는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하여 과멸시킨다는 치열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여인의 후손인 메시아는 발뒤꿈치를 물릴 것이나 사탄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탄이 승리의 축배를 들고 있는 동안 십자가에서는 속죄의 대업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시는 동시에 구원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어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의 죽음을 연기시키시고 오히려 구원주를 보내주신다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사탄의 권세를 부수고 승리하셨습니다.

크리스마스는 바로 구원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입니다. 수천 년 전 에덴동산에서 약속으로 주신 메시아가 오신 날입니다. 이 땅의 온 백성들이 약속대로 오신 우리 구주 예수님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영접하는 복된 성탄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 만백성 맞으라...

다채로운 행사를 맞이하는 성탄절

올해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강림하신 성탄절을 맞이하였다. 우리교회는 금년 성탄절을 온 성도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맞이하기 위하여 다채로운 행사로 준비하였다.

24일 저녁 7시 성탄전야 축하 예배로 드리고 교회학교 학생들(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어린이들, 중고등부 학생, 대청부)이 그동안 준비하여 온 유통과 찬양으로 축하 행사를 갖는다. 특히 교육1국 어린이들은 순수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 찬양으로 이 날 예배를 더욱 아름답게 할 것이다. 또한 이날에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려고 산타클로스 할아버지들이 대거 서울교회로 찾아와 함께 성

탄을 축하 할 예정이다. 이날 수요1부예배는 드리지 않는다.

25일(목) 성탄절 새벽예배는 새벽 5시에 드리게 되며 오전 11시 성탄 감사 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아기 예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이 시간에는 성탄감사헌금을 드리기도 한다.

한편 우리교회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는 EBS TV(채널13) 프로그램(24일 23:10~24:00)에 출연하여 성탄축 하연주를 하며 지난 16일(화) 우리교회가 주관하여 올림픽홀에서 공연한 제36회 메시아 대합창 실황 녹음이 극동 방송(HKLY 98.1 MHz)을 통해 24일 낮 1시부터 2시까지 1시간 동안 방송될 예정이다.

[예배위원회]

- 위원장: 최종시 장로
- 치도: 윤영국 목사
- 서기: 오광환 집사, 박경우 집사

주일 | 부

(안내)
· 부장: 이재홍
김광태 감상대 박조원 한종표 을대목 이병현 김재근 강한중 김숙자
김은미 김희숙 회장회 박순복 송숙영 이미승 채정희 김광태

(현금)
· 부장: 류종관
조원장 윤영구 박찬성 일선협 조성현 송재현 진숙진 회계부문 전길자
김미랑 김준구 김예실 김우숙 김인실 김지은 김진희 이봉규 김희자
박현숙 손현숙 송미자 송희숙 신경희 안선희 이갈연 이정현 이혜선
임희분 강의남 정수진 전선자 한난숙 홍재식 선순례
(음악실)

· 신장: 조철기
(승강대) 김영란 김은희 일간자 조종화

주일 | 부

(안내)
· 부장: 오광환
김진환 고석태 김희석 박경우 서창원 소온 우안현식 박태섭 민병환
박병수 김미자 황영희 나연신 이기숙 김초일 임정인 장효정 표명자
현기숙
(현금)
· 부장: 이남성
한길동 김정일 김종윤 박용봉 손준근 천기성 유희재 강명실 고완순
공진원 김명화 김숙영 함당숙 김영정 회현인 박재순 박정옥 박천희
박준우 송정숙 오은이 이세봉 신경순 일승자 일운자 전행자 회대목
황개연 김영실 강애자 화선자 일승자 회영란
(음악실)

· 안재희 양수현 이일영
(등식통)
· 김사라

주일 | 부

(안내)
· 부장: 양준경
김승록 남정열 우상배
(현금)
· 부장: 이재원
유신 송성식 강희자 김정숙 김정희 김자숙 남영주 마온숙 신기숙 신상필
서순영 김희진 이경화 이봉선 이승희 장주자 정희준 조상희 황보주자
박미혜 홍승자
(음악실)
· 정 전 김금란 정승렬 김신영

친양예배

· 차장: 고연우, 윤숙희
김상태 김숙자 노정숙 이자혁
(음악실)
· 유재형 윤요섭 조종화

수요 | 부

(안내) 차장 윤숙희
· 부장: 김규태
· 차장: 정경자

수요 | 부

· 부장: 김규태
· 차장: 조원장 이자혁

[전도위원회]

- 위원장: 민순구 장로
- 선교부장: 김상철 장로
- 회계: 양춘경 집사

전도부

◆ 70인전도대

- 대장: 김은태 집사

◆ 축호전도대

- 팀장: 이승희 목사
- 회계: 김금준 집사
- 간사: 심명숙 집사 박이선 집사 김간진 집사
- 대원: 김동진 김정애 박준향 박춘자 안미경 임인선 전하미 최향봉
함언호 김영숙 최미경 김영희 박진경 송인숙 이명숙 이선희
이정희 전숙숙 하영숙 배경숙 석준희 유성임이 인숙 임명숙
장기봉 장정화 조영자 하우봉 허기숙 강정숙

◆ 문서전도대

- 팀장: 박현영 집사
- 대원: 이나환 박순복 서종숙 안명덕 최미경 박종숙 석상화 장효정
이승복

◆ 수요전도대

- 팀장: 주경자 집사

◆ 수요야간전도대

- 팀장: 김금준 집사 총무: 김찬진 집사
- 대원: 이해원 주동재 팀 김금준 안준홍 최나준 이경구 하영수 김은태
유영준 유성임

◆ 봉사부

- 대원: 이종호 원용범 박찬성 강원배 함언호 김영희 이명숙 문옥희
결신부자: 심명숙 집사
- 대원: 한삼현 이명숙 김영숙 경은숙

◆ 토요전도대

- 팀장: 이경구 집사

◆ 주보기도팀

- 팀장: 주동재 집사

◆ 대원

- 여현진 장정화 김순자 임순자 김치순 장효숙 김선희 방승희
전수자

◆ 전도학교

- 간사: 김은태 집사

◆ 충무

- 충무: 한상준 집사 · 회계: 김금준 집사

◆ 모집단

- 모집단장: 이순희 집사, 박이선 집사, 심명숙 집사, 김한진 집사

◆ 남선교회의 · 여전도회

- 남선교회간사: 김규태 집사 · 여전도회간사: 허숙 집사

선교부

- 간사: 유기찬 집사, 이난희 집사

◆ 농어촌100교 운동

- 간사: 한은경 집사, 전숙향 집사

◆ 진농설

- 회계: 김금준 집사

◆ 실업인선교회장

- 회계: 김금준 집사

◆ 의로선교회장

- 회계: 김금준 집사

◆ 학원선교회장

- 회계: 김금준 집사

◆ 이미용선교회장

- 회계: 김금준 집사

◆ 종무

- 종무: 윤숙희 집사, 서기: 이자혁 집사, 회계: 박현영 집사

[상장부]

- 부장: 민순구 장로

◆ 회계부

- 회계: 김금준 집사

제36회 교회연합

메시아대합창제



김형택 집사(12교구)

지휘자의 손이 후려치듯 내리자 무섭게 폭발하는 박수소리 이어서 합창석 바닥을 뒤흔드는 발 구르는 소리 '박수'는 연주가 모두 끝난 뒤에 쳐 주시고 곡목 사이사이에는 삼가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연주시에 앉은 채로 계십시오.'라는 사

전 주의도 터져 나오는 감격에는 막무가내였다. 헬렌로 하여금 불과 3주 만에 신들린 듯이 이 대곡을 써내려가게 한 성령의 감동이 이 무대에도 뜨겁게 임하신 것이었다.

고등학교 합창부 시절 기합 받으면서 익혔던 '할렐루야' 외의 만남에서 비롯된 메시아 대연주회 열 몇 번째 무대 더구나 주관교회 준비위원의 한 사람으로서의 감회가 새로운데 백효죽 지휘자와의 만남은 더욱 무르익었다. 대회 진행 업무로 오히려 연주석에는 오를 형편이 못되었는데 그랬더라면 얼마나 아쉬웠을까?

메시아 연주는 잘해야 본전이라는 속언처럼 언제해도 어렵고 새로운데 이번 연주는 종래의 장엄함에 부드러운 낭만을 더하여 그 감동이 더욱 애틋했다.

'주의 영광, 땅에는 평화' '오, 기쁜 소식을 전하는 자여' '우린 양과 같이 맘대로 하였네'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영

원한 문들아 머리들라 영광의 왕이 들어오신다' '할렐루야' '찬송과 존귀영광 주께 돌리세' '영원히 영원히 아멘' '메시아 대연주회'는 한국의 여러 교회 찬양대들이 모여서 보통 500여명 정도의 합창단이 형성되어 최고의 지휘자, 최고의 독창자들과 어우러져 10월부터 연습하면서 성탄을 축하 연주하는 금년 36회에 이른 전통 깊은 연합의 행사이다. 서울교회에 주신 능력과 화합의 축복을 다시 한번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연주위원장인 임상현 장로님의 치밀한 계획에 따라 연습계획과 준비업무가 여유있게 진행되어 각 찬양대는 주중연습을 시작하고 8월부터는 우리교회 연합연습으로 꼭 익히고 10월 들어서는 50여개 교회가 모인 한국 교회 연합찬양대로서 주2회의 본격 연습에 돌입하였다.

큰 명활을 달아주고 매번 서로 인사하는 시간도 가져 연합의 의미를 더욱 다각각했다. 연습 참가 횟수에 따라 참가자격 심사를 예고하고 연주시 위치를 개인별 번호로 지정하여 주는 등의 천에 없던 지혜도 보여 주었다.

서울교회 일원, 메시아 대연주회 찬양대원, 연주위원회 일원의 한 사람으로 선택되고 다듬어진 하나님의 사람들 속에 벽찬 행복에 감사한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평생을 살게 하소서.

12월 24일 성탄전야예배를 준비하며

영광이 찬란한 말구 유로 초대합니다



아영수 장로(교육1국장)

구주가 나신 말구유로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그곳은 호화로운 혜롯 궁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온갖 재주를

동원하여 꾸민 화려한 곳도 아닙니다. 물밀듯이 몰려다니며 한성을 지르는 요란한 거리도 아닙니다. 그곳은 보잘 것이 없고 재미도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천사들의 합창소리가 울려 퍼지며 하나님의 영광이 비취는 곳입니다. 천사들이 춤을 추며 노래하는 곳입니다. 슬픈 울음 소리가 없고 고통 소리도 없는 거룩한 곳입니다. 그 곳은 사막이라도 물이 넘치며 혐산 준령이라도 평지가 되며 지옥이라도 천국으로 변하는 곳입니다. 아무에게나 공개되지 않으며 아무나 오는 곳이 아닌 오직 초대받은 사람만이 올 수 있는 곳입니다. 육신으로는 보잘 것이 없는 것 같아 보이지만 영의 눈에는 말할 수 없이 영광스럽고 화려한 곳입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처음 오셨을 때와 같이 우리 주님은 언제나 이곳에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곳에 모인 무리들 가운데 함께 계시며 가장 깊은 사랑과 큰 관심과 큰 뜻을 나타내십니다.

이곳에서 하나님 택하신 어린이들과 아기천사들이 함께 찬양하려고 준비했습니다.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와 할아버지와 함께 오십시오. 여기가 좋습니다. 온 가족이 손을 잡고 "메리 크리스마스" 기쁨으로 인사하며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로 하나님 보좌에까지 울려 퍼지게 함께 노래하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를 부모께 하시고, 병든 자를 일으키시며, 외로운 자에게 만족함을 주시는 주님 나신 말구유. 서울교회에서 성탄 전야의 밤에 은혜로 준비했으니 서울교회로 오시기 바랍니다.

부서 탐방

그레이스 핸드벨콰이어

매주 일 2부 예배시 예배위원들을 인도하여 파이프 오

르간과 맞춰 연주하며 입장하는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 (대장 김규태 집사, 부대장 이영희 권사, 지휘 송소영 선생)는 예배의 시작을 알리고, 그 아름다운 소리로 예배자들은 마음을 어루만지며 경건한 예배를 준비한다.

인간이 종을 사용한 것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부터였으나 기독교의 예배 의식에 사용된 것은 주후 4세기 경부터였다고 한다.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면서부터 예배자를 부르는 독특한 방법으로 종이 사용되기 시작하였고 복음을 전하는 일과 함께 종의 사용도 널리 퍼지게 되었다.

현재 서울교회의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는 14명의 대원과 4명의 예비 연주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지난 2000년 성탄절 입당예배 때 처음 선보인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는 그간 조용히 예배당의 한쪽에 앉아 2부 헌금송과 각종 절기 행사에 참여해 왔다.

High bell, Middle bell, Bass bell 등 3 파트로 구성된 핸드벨은 한 사람이 3~4개의 벨을 가지고 연주하는데 보기에도 힘겨운 Bass bell은 몹시 무거워 연주하고 나면 장정

들도 팔이 아플 지경이란다.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가 이번 성탄절에는 EBS-TV에서 유명 교향악단과 세계적인 바이올리ニ스트 유진 박과 함께 출연하는 성탄 행사에 초청을 받아 크리스마스 캐롤 2곡을 연주하는데 이미 녹화가 끝난 날이 방송은 24일 저녁 11시에 EBS TV(채널 12)에서 방영된다. 지휘하는 송소영 선생은 핸드벨 콰이어의 대원들이 주로 학생이어서 유학을 간다던지, 혹은 군을 입대 하는 등 유동이 많아 콰이어를 이끌고 가기에 다소 애로가 있지만 많은 성도들이 핸드벨 콰이어를 사랑하고 격려해주어 힘이 난다고 한다. 새로 입단한 예비 연주자들도 앞으로 3~4개월 집중 훈련을 받고 예배에 참여할 예정이며 많은 분들이 핸드벨 콰이어의 입단 문의를 해오므로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평일에 활동할 수 있는 집사님들을 중심으로 핸드벨 콰이어를 따로 조직하여 교회内外에서 활동을 하면 좋을 것 같다고 한다.

종소리만큼이나 아름다운 지휘자 선생님의 바램처럼 그레이스 핸드벨 콰이어가 부디 예배자들의 마음을 평안으로 이끌며 예배를 돋는 예배위원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 바란다.

허숙(편집부)



▶ 12월 24일 성탄 전야예배를 준비 중인 유아부 어린이들

나의 아버지시여

하정자 권사(7교구)

그는
고운 모양도
풍채도 없이
가난하게 오신님
왕 중 왕
말구유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이시여

친히 상하시고
찔리시어
그 험한 십자가지신 님
그는 육신으로
이 땅에 죽으러 오신
나의 하나님 이시여

그는
추한 허물
더러운 죄를
용서 하시려 오신 님
십자가 그 피로
이 땅에 우리들 구속 하려 오신
나의 하나님께서

때때로
눈물 흘리시며
우리의 눈물
닦아 주시는 님
그는 자비하시어
이 땅에 사랑으로 오신
나의 아버지시여

어두운 무덤에
갇히시어
사흘 만에 생명으로 오신 님
그는 못 자국으로
사랑을 확증하신
부활의 주님으로
살아계신
나의 아버지시여

추억의 성탄절

유명희 집사(1교구)

밖에는 장독대 위로 싸락눈이 쌓이고 그 옆 꽃들이 시든 빈 화단에는 읊씨년스러운 겨울바람이 잔 나뭇가지를 스치는 그런 날이라는 걸 매년 반복되는 일의기에 쉽게 떠올린다.

지금도 어느 시골의 교회에서는 성탄절 축하 공연을 끝낸 젊은이들이 발을 동동거리며 성도의 집 앞에서 기쁜 복음의 노래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기쁘다 구주 오셨네'를 부르는 목소리는 기쁨과 환희에 찬 반면 '고요한 밤 거룩한 밤'은 가사처럼 거룩하고 정중하며 신비한 음성에 가득 차 있다. 동네 중·고등부 학생과 청년으로 구성된 성탄절 성가대원들은 밤 12시부터 예수 탄생의 기쁨과 구원을 전하기 위해 밤이 새도록 기쁨에 차 축기를 부르고 있는 것이다.

성스러운 그 노래와 분위기에 사로잡혀 있는 어린 소녀는 내내 이

vision 2020 은 둘은 우리의 미래!

이갑진 장로(12교구, 비전2020운동 위원장)

군 복음화를 통한 민족 복음화의 비전을 구현하고자 하는 비전
2020 운동에 참여하고 후원해 주신 성도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하나님
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후원으로 육군사관학교 졸업예배와 세례식을 주관하고 육군 3사단과 23사단의 세례 지원을 위해 각 부대에 매달 50만원씩의 지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개인당 3,000원으로 한 생명을 구원하는 이 운동에 참여하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결선 장병들의 전도, 입대장정의 교육, 사랑의 온차 지원 등 하나님 사업에 뜻있게 사용되었음을 보고 드리며 2004년의 vision2020 운동에도 성도 여러분의 더 많은 참여와 후원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vision2020운동 본부 임역원들은 2004년도에도 혼신을 다해 군 복음화 운동에 임하겠습니다.

2004년 남선교회 · 여전도회 임원 명단

명칭	지도 교역자	회장	부회장
빌립(30~39)	윤영국 목사	김영주	이영수
안드레(40~44)	이용식목사	유영준	오승민
베드로(45~49)	오정식목사	안성현	윤동수
바울(50~54)	이규정목사	이계홍	김규태 · 이동권
엘리야(55~59)	이성득목사	이관규	손병석
모세(60~64)	김운호목사	이찬호	탁경준
아브라함(65세 이상)	한상은목사	박두영	서귀용
도르가(30~39)	윤영국 목사	송희숙	김희정
루디아(40~44)	이용식목사	박종숙	이미송
뵈뵈(45~49)	오정식목사	김선영	허숙
마리아(50~54)	이규정목사	주경자	김현정
에스더(55~59)	이성득목사	이인선	잔원순
한나(60~64)	김운호목사	윤문자	손재겸
사리(65세 이상)	한상은목사	홍광숙	이순례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로 임명된 2004년도 섬김위원들에게 사명을 주소서
 2. 병상에 있는 환자들, 출타자, 실직자, 소외된 자, 입시생들을 위하여
 3. 낮은 곳으로 오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4. 나쁜 일의 아뢰기와 범역을 일컬어

■ 예배 및 진회

구 분		시 간
주 일 예 배	I 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20분
	III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수 요 예 배	I 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 요 기 도 회		오후 9시 30분
새 별기 도 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100

성수대교

영통대교



대치역 2번출구로 나와 도보로 5분거리